

Section 232 최종 선언 및 영향

“ [정책 개요] 8/6, 트럼프 행정부는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에 대한 무역확장 법 232조 조치를 발표했다. 미국 정부는 폴리실리콘을 반도체와 태양광 산업에 모두 필요한 국가안보 핵심 소재로 판단했다. 미국의 글로벌 폴리실리콘 생산능력 점유율이 2005년 50%에서 2024년 2% 미만으로 하락했고, 반도체 웨이퍼 점유율도 1990년 37%에서 2024년 10%로 낮아졌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 1) 12월 4일부터 최저수입 가격(MIP)을 도입한다. 폴리실리콘 \$21/kg, 잉곳·웨이퍼 \$100/kg, 태양전지 \$0.22/W, 모듈 \$0.38/W가 기준이다. 미국 내 판매가격이 이를 밑돌 경우 차액만큼 관세가 부과된다. 사실상 중국산 저가 제품의 미국 시장 진입을 막겠다는 의미이다. 2) 잉곳과 웨이퍼·셀·모듈 등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는 15% 관세를 추가한다. 다만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자체는 15%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MIP만 적용된다. 한국·일본·EU·스위스·리히텐슈타인은 기존 관세와 이번 232조 관세를 합산해 15%가 적용되며, 영국은 10%다. 3) 미국에 생산시설을 투자하는 기업에는 관세 혜택을 제공한다. 미국 내 폴리실리콘·잉곳·웨이퍼·셀 생산시설 투자를 약속하고 2029년 1월까지 착공하면 투자 규모에 따라 일정 물량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. 이번 정책 목표는 중국산의 미국 유입을 막는 동시에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것이다.

“ [한화솔루션] 한화큐셀은 Cartersville에 잉곳·웨이퍼·셀 3.3GW, Dalton 포함 조지아 전체에 모듈 8.6GW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. 잉곳부터 모듈까지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어 수입 파생제품에 부과되는 15% 관세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.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은 OCI의 말레이시아산을 포함한 비중국산 원료 사용을 확대했다. 폴리실리콘 자체에는 15%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\$21/kg의 MIP만 적용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세 부담도 제한적이다. 오히려 경쟁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. MIP가 셀 \$0.22/W, 모듈 \$0.38/W로 설정되면서 중국산 저가 제품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진다. 이미 미국 생산능력을 확보한 한화큐셀 입장에서는 경쟁사의 저가 공세가 약해지고 미국 내 가격과 가동률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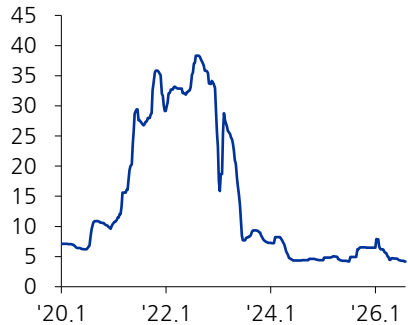
“ [OCI홀딩스] OCI TerraSus의 말레이시아산 폴리실리콘은 15% 관세 대상이 아니며 \$21/kg의 MIP만 적용된다. 중국산 폴리실리콘 가격이 \$4/kg 수준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미국이 사실상 \$21/kg의 가격 하한을 설정한 셈이다. 따라서 중국산 저가 폴리실리콘의 미국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비중국산 폴리실리콘의 가격 프리미엄과 수익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. 반면 다운스트림은 베트남 웨이퍼가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. 그러나 향후 동사의 실적이 대부분 폴리실리콘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고 투자 계획에 따라 회피할 가능성도 있어 역시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.

업종투자 의견

OVERWEIGHT

폴리실리콘 가격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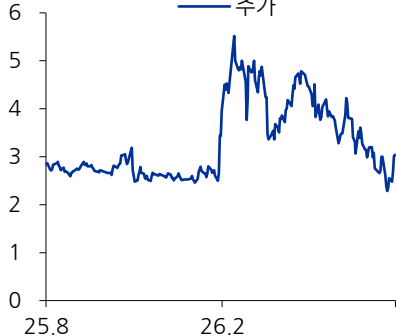
(천달러/톤)



자료: Bloomberg, 유진투자증권

한화솔루션 주가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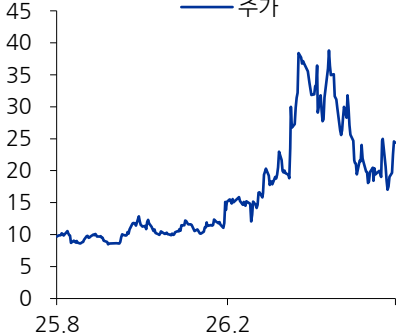
(만원)



자료: 유진투자증권

OCI홀딩스 주가 추이

(만원)



자료: 유진투자증권

Compliance Notice

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

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

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

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

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

동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

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

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동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

투자기간 및 투자등급/투자의견 비율

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: 12개월 (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)

당사 투자의견 비율(%)

· STRONG BUY(매수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+50%이상	3%
· BUY(매수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+15%이상 ~ +50%미만	94%
· HOLD(중립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-10%이상 ~ +15%미만	3%
· REDUCE(매도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-10%미만	0%

(2026.6.30 기준)